

건축학교육 인증 심사 신청서류

프로그램명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프로그램 대표자 : 건축학부장 박 철 수 (인)

목 차

Section	Page
I. 학교 개황과 학과 역사의 소개	1
II. 건축학부 및 건축학 전공의 조직 소개	20
III. 교수진 현황 / 이력서	24
IV. 학생 현황	83
V. 교과과정	88
VI. 강의 과목과 규모	121
VII. 학교 전체의 도서 / 정기 간행물	234
VIII. 전공에 관한 도서 / 정기 간행물의 구체적 상황	236
IX. 물리적 자원	238
X. 수업 현황	251





건설공학관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전경

I. 학교 개황과 학과 역사의 소개

I. 학교 개황과 학과 역사의 소개

I-1. 서울시립대학교 역사

유서 깊은 전통 배농산 기술의 14만 여 평 교지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는 1918년 경성공립농업학교로 개교한 이래 87년간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재를 배출하여 왔으며, 서울시와 학교가 혼연 일체가 되어 내실을 다져온 결과 현재 7개 단과대학에 7개 학부 27개 학과로 입학정원이 대학 1,815명, 대학원 1,070명에 이르렀으며, 지금까지 3만여 명의 졸업생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교정에는 1만 2천여 명의 학생이 학문연구와 인격도야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진리·창조·봉사'라는 교훈 아래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할 학문을 교수하고 연구하는 대학의 기본적 책무와 함께 서울특별시와 운영의 주체라는 점에서, 그리고 대도시 문제에 대한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는 대학 운영과 교육의 기본목표를 「도시과학 관련학문의 특성화·명문화 대학」, 「서울시민에 봉사하고 시정에 기여하는 대학」, 「21세기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에 두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1918년 5월 1일 개교한 「경성공립농업학교」를 모체로 하여 1950년 6월 「서울농업초급대학」을 설립함으로써 현재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1956년 3월에는 학사행정 체제와 물리적 시설을 대폭적으로 보강하는 동시에 당시의 대학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농업대학」으로 개칭,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사회변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대학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74년 3월 기존의 농업계 중심 설치학과를 폐지하고 도시과학 분야의 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교명 역시 「서울산업대학」으로 변경하기에 이르렀으며, 1975년 1월부터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관장하던 학사 지원체제를 서울특별시로 이관함으로써 서울특별시에 의해 운영되는 명실상부한 공립대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81년 10월부터는 대학의 정체성을 명료하기 위한 조치로 교명을 「서울시립대학」으로 변경하였으며, 대학원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설치함으로써 교육 중심의 학부과정과 연구중심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을 모두 포용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1982년 3월에는 복합화되고 거대화되는 대도시 문제의 모든 영역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도시문제를 심층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도시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시행정대학원을 개원함과 아울러 산학연 협력연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부속기관을 원비하고 각종 연구소를 설치함으로써 광범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 등의 모든 영역에서 손색없는 지상인 양성의 요람으로서의 면모 갖추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 1986년 11월 6일 종합대학으로 개편되었고 1987학년도부터 「서울시립대학교」로 새로이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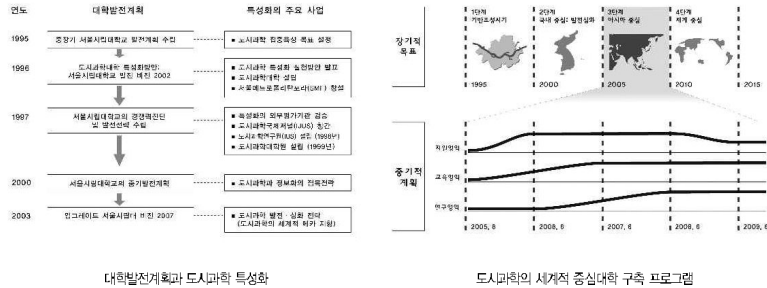
1990년 3월에 유능한 경영인 양성을 위한 경영대학원을, 1991년 3월에는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대학원을 개원함으로써 학문의 다양한 영역을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과 지원체제를 갖추었다. 1986년 8월에는 미국의 예크론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일본 동경도립대학, 헝가리 부다페스트대학, 폴란드 우지대학, 미국 모헤드주립대학,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동경학예대학, 히로시마여자대학,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 등과 연속적인 학생 및 교수 교류 등의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교류하는 등의 사업을 통하여 국제화된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도시과학 대학의 건축학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아시아 건축도시 연합(일명 ACAU)'과 '한-독 공동스튜디오', '철암과 인체의 집짓기 봉사'와 '목조건축 프로그램과 어린이 건축학교 운영' 등은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시과학 특성화에 주목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는 1997년에는 일대 개편을 통해 국내 최초로 도시과학대학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대학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조직에서 탈피하여 이론과 실무를 지향하는 교육과 연구에 주목하는 각종 학과가 모여 학제간 연구의 메카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1998년 4월에는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고 차원 높은 도시정책 연구수행 체제를 원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시관련 부설연구소를 통합하여 도시과학연구원을 설립하였으며, 1999년에 예술학문의 독자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문리과대학에서 예술 관련학과를 분리하여 예술대학을 신설하였다. 2000년 1월에는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와 도시방재안전연구소를, 3월에는 벤치창업의 육성 지도를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각각 개소하였다. 또한, 3월부터는 도시과학 연구중심 대학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도시행정대학원을 「도시과학대학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세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대학원을, 교육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대학원을 개원하였다.

2001년 7월에는 예술대학을 예술체육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체육정보학과를 신설하였으며, 10월에는 서울시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전자정부연구소를 개소하였으며 2002년 11월에는 국가 전략산업인 IT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디지털미디어」 대학을 설립하였고, 2004년 2월에는 정부의 세계개편과 부동산보유세 개편 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방세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디자인대학원을 신설하였다. 또한 2004년 4월에는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조형관을 신축 개관하였으며, 2004년 9월에는 디지털미디어대학을 폐지하고 문리과대학을 인문대학과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하는 등 교육조직을 정비하였으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교육원 설립과 전자계산소의 명칭을 전산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조직도 합리적으로 개편하였다.

건축학부가 속한 도시과학대학은 1995년부터 착수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따라 설치된 국내 최초의 특성화 단과대학으로서 1995년부터 시작된 「도시과학 중심의 발전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1997년 도시과학 특성화로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최초의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다시 3년 연속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드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는 '도시과학의 세계적 교육·연구 중심대학'을 목표로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도시과학 특성화의 3단계 목표인 '도시과학 교육·연구의 아시아 중심대학'을 목표로 대학 운영의 역동성을 진작시키고 있

다. 건축학부는 도시과학 특성화의 다양한 사업 가운데 '아시아 건축도시 연합(Asian Coalition for Architecture and Urbanism)'과 '베세토-아시아 아카이브 구축(BeSeTo-Asia Archive)' 사업의 주관학부로서 도시과학 특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발전계획과 도시과학 특성화

도시과학의 세계적 중심대학 구축 프로그램

1-2. 도시과학대학과 서울시립대학교의 도시과학 특성화 전략

1) 도시과학 특성화의 추진배경

1918년 경성공업농업학교로 출범한 서울시립대학교는 해방 후 서울농업대학을 거쳐 1974년 서울시가 운영 주체가 되면서 농업계 학과들을 전면 폐지하고 도시 관련 학과들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그 결과 우리 대학은 도시계획, 도시행정, 환경, 교통, 건축, 조경, GIS 등 도시 관련 학과를 타 대학보다 앞서 개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의 강점이자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과학 분야를 대학발전에 체계적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은 미흡

이런 과정에서 대학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1995년부터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비교우위를 가진 도시과학 분야의 특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가 운영주체인 공립대학교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 복합적·동태적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도시과학' 정립이 필요하나 당시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 저조
- 서울시와의 관학협력 속에서 우리 대학은 도시 관련 교육 및 연구 자원이 풍부하여 도시과학 분야에서 타 대학에 비해 비교우위 선점

-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공립대학교로서 서울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통해 시정 및 시민에게 기여

그 결과 서울시립대학교는 1995년부터 도시과학 중심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학 구성원의 합의, 역대 총장들의 리더십,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기반 조성 시기'와 '발전·심화 시기'를 거쳐 현재 '아시아 중심대학 구축시기'에 이르고 있다.

- 1997년 도시과학 특성화로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
- 2003년, 2004년, 2005년 3회 연속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2009년까지 정부의 특성화 지원자금 수혜)

향후 우리 대학은 특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내실 강화를 위해 '도시과학의 세계적인 메카' 구축에 장기적 목표를 두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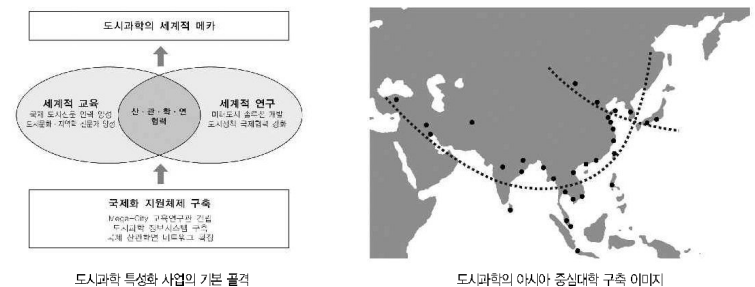
- 2003년부터 도시과학 국제화를 위한 기반조성 추진 중(예: 건축학교육 국제인증 시험실사, 아시아 건축도시연합 결성, 국제학술대회 개최, 해외 유명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국제 교류관 건립 등의 지속적 추진)

2) 특성화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

- ① 사업목표: 도시과학의 세계적 교육·연구 중심대학 구축

교육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세계 최고대학 육성계획에 부응하여 비교우위를 선점한 도시과학 분야의 국제화를 통해 대학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도시과학의 세계적 교육·연구 중심대학을 지향하되, 중·단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도시과학의 아시아 교육·연구 중심대학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선도적 기능을 건축학부가 담당하고 있다.

- 도시과학 교육과 연구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지역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아시아 허브대학 구축이 선결과제
- 베이징-서울-동경을 잇는 동북아 '베세토(BeSeTo) 라인'과 서울-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중동지역의 대도시를 잇는 '범아시아(Pan-Asia) 라인'의 X축을 전략 축으로 설정



② 특성화 사업의 필요성

도시문제는 이미 탈지역화와 광역화를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탈지역화와 광역화의 경향이 강한 미래 도시문제는 국가간 협력과 공조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이미 럽과 북미에서는 도시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로는 유럽 각국의 도시문제와 기술혁신을 주제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2년까지 비교도시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우르비노 프로젝트(Urbino Project) 등을 꼽을 수 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그동안 축적해 온 도시문제 솔루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아시아 각국에 전파하는 동시에 도시 관련 정보 및 지식의 상호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의 국제적 해결 역량을 제고할 시점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 관련 정책과 기술을 해외 대도시 정부에 수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학교가 지역연구의 메카로 운영중인 서울학 연구소 등은 이미 중국의 북경에서 벤치마킹하여 북경학 연구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등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문제의 솔루션을 국제교류를 통해 외국도시에 적용하는 동시에 외국 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적용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도시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국내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외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추적 전략이 곧 도시과학 교육 연구의 세계적 중심대학 구축으로 수렴된다 할 수 있다.

③ 특성화 사업과 대학발전의 연계

서울시립대학교는 1995년부터 이미 특성화 전략을 수립, 지속적인 추진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에 작성된 「업그레이드 서울시립대 비전 2007」에서는 21세기 글로벌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첨단 도시형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있고, 서울시립대학교의 핵심역량인 도시과학을 국제화하여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시키는 도시과학 교육·연구의 세계적인 메카로 도약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중심 도시과학 육성사업」을 시작하여 ‘도시전문가 양성’과 ‘도시문제 솔루션 제공’을 실행목표로 설정·추진해 왔으며, 2005년부터 향후 4년간은 국내에서 아시아권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국제적인 도시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을 국제적으로 확산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3) 특성화 사업의 기본골격과 구성

서울시립대학교의 도시과학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사업은 크게 지원영역과 교육영역 그리고 연구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지원영역은 국제적인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Mega-City 교육연구관 건립, 도시과학 정보시스템 구축, 국제 산관학연 네트워크 확장 등을 통해 물리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영역은 국제적인 수준과 감각을 갖춘 건축도시 전문가의 양성으로서 2004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도시전문가 양성 사업을 심화·확대하여 향후 4년간은 국제화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과 지역전문가 양성을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연구영역은 도시문제 해결방안의 국제적 확산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도시정보, 도시환경, 도시디자인, 도시문화·정책관리 등 기존의 도시과학 4대 연구영역을 체계화 전략에 부합하도록 미래도시 솔루션 개발 및 도시정책 국제협력 강화 등 2개 사업으로 재정리하여 추진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① 연차별 계획

2005년부터 시작된 도시과학 특성화 사업은 서울시립대학교가 1995년 이후 추진해 온 도시과학 특성화의 3단계에 해당하는 도시과학 교육·연구의 아시아 중심대학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지원영역과 교육영역 그리고 연구영역의 3개 영역을 4년간 일관되게 추진하되 전반기에는 지원영역, 중반기에는 교육영역, 후반기에는 연구영역에 집중 투자하는 단계적 방안을 통해 전략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② 사업의 파급성 및 기대효과

서울시립대학교의 도시과학 특성화사업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정체성 확립을 통한 우수 신입생 및 전문가 유치를 목표로 추진되는 전략이다. 즉, 특성화 사업을 통하여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를 명확히 설정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한다는 취지에서 수행되는 전략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가 ‘도시과학의 메카’로 도약함으로써 국내외 도시정부의 공무원과 산업계 전문인의 재교육 및 국제교류의 장으로 대학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의 추진성과는 단기적으로는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도시전문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도시문제의 복합화에 따라 이에 대처하는 학제적인 복합전문가가 요구된다는 전제에서 도시과학대학을 중심으로 실행계획이 추진된다.

이상의 특성화 전략은 곧 서울이라는 대도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세계적 대도시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우리 대학 특성화의 경험과 지식은 국내외 도시정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 궁극적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가 1995년 이후 10년간 물적·인적 자원을 도시과학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학 특성화의 전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은 세계적 도시과학의 메카로 서울시립대학교가 발돋움하여 대학경쟁력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사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전략인 동시에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대학내의 다양한 전문영역과 학과 혹은 학부가 동일한 효과를 수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부의 특성화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학부 경쟁력 강화의 전략이 되기도 한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프로그램과 도시과학특성화 연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축학부의 경우는 대학특성화의 수범적 학부이자 전공 프로그램으로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3. 건축학부 연혁 및 건축학 전공의 특성화 프로그램

1) 건축학부 연혁 및 학부 소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건축학부는 1975년에 설립된 건축공학과를 모태로 하여 2005년에 학과 설립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1975년에 설립되어 주간학과와 야간학과로 나누어 운영하던 건축공학과는 1982년에 대학원 석사과정의 건축공학과를 신설하여 건축계획 전공과 건축구조 전공의 트랙으로 운영되었으며, 다음 해인 1983년에는 산업대학원에 석사과정의 건축공학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1985년에는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을 신설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가 대학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1995년에는 건축+도시+조경의 학제간 교육 및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최초로 건축·도시·조경학부로 통합하였고, 2000년부터는 건축공학 전공 영역을 건축학 전공과 건축공학 전공으로 분리하면서 이간학과를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교과내용과 학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으며, 2002년 5년제 교육과정의 건축학 전공과정을 새로이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국제적 교육과정 인증준비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설립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에 따라 인증대비 모의실사 대상 학과로 위촉되어 건축학 교육인증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2005년 2월에는 건축학 전공과 건축공학 전공을 포용하는 건축학부로 독립함으로써 도시과학대학 내의 학부구성을 완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내의 도시과학대학내에 건축학부로 자리매김하고 매년 건축학 및 건축공학 전공의 신입생을 각각 40명씩 수용하여 내실을 다하는 전공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75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신설

- 1982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신설
- 1983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신설
- 1985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신설
- 1996 건축공학과가 학부 체제 개편에 따라 도시과학대학 건축·도시·조경학부 건축공학 전공으로 개편
- 2000 건축학 전공과 건축공학 전공을 분리하고 도시과학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신설
- 2002 건축학 전공 교육과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5년제로 개편
- 2003 5년제 건축학 교육과정이 인증대비 모의실사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임되어 피실사
- 2005 건축·도시·조경학부에서 건축학부를 분리하여 건축학 전공(5년제)과 건축공학 전공(4년제)으로 운영



건축학부가 소속된 건설공학과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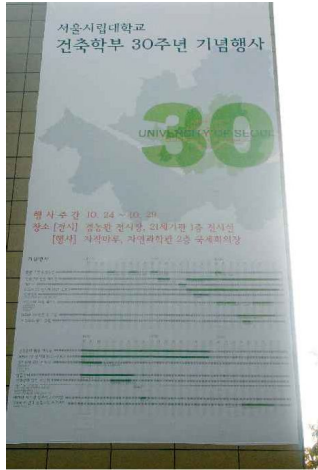


건축학부가 소속된 건설공학과, 스튜디오 Annex

2)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과정 특성과 교육목표

2005년에 학부 설립 30년을 맞이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전공 프로그램의 특성은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대학>, <도시과학 속의 열린 건축교육>, <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이라는 세 문구에 압축되어 있다. 1996년에 도시과학대학이 신설되면서 건축·도시·조경학부에 건축전공이 소속됨으로써 국내의 타 대학과 차별화를 시작하였고, 2000년에는 건축공학 전공과 분리하여 건강한 건축가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건축학전공 체제를 마련했다. 2002년에는 건축학전공을 5년제로 전환하고, 교육의 내용과 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편했다. 학위명을 공학사(BS)에서 건축학사(BArch)로 변경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졸업 최저이수학점을 164학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2003년 6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발족을 위한 연구팀에 의해 시범실사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한국형인증규준 및 절차”에서 제시한 39개 학생수행평가기준(student performance criteria)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내용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고, 2005년에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출범에 따라 기존의 학생수행평가기준을 다시 41개로 개편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건축학 전공의 설계교육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혁신적 미디어를 구사하는 건실한 건축인을



건축학부 30주년 기념행사 현수막

배출하는 것이다. 화려한 전위건축가와 상업자본주의에 편승하는 건축사의 중간지대에서 활동할 중추적 건축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도시건축문제와 현안을 다루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일한 공립대학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담아 특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건축학 전공과정의 5년제 교과목의 구성과 체계는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따르고 있다. 5년제 교과목의 핵심은 건축설계이다. 견실한 건축인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스튜디오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스튜디오간의 연계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건축설계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10단계로 나누어지며 단계별로 교육목적을 명확히 했다. 컴퓨터응용 2과목도 건축설계에 준하는 과목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건축학 전공에서 개설하는 총 39과목에서 건축설계 (10과목, 51학점)와 컴퓨터응용 (2과목, 6학점)은 학점과 시간 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건축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27개 이론과목은 커뮤니케이션, 문화적 맥락, 기술, 실무 등에 포진하면서 설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3)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요

5년제로 운영되는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프로그램은 ① 혁신적인 미디어를 바탕으로 한 견실한 건물을 만들어내는 건축가의 배출, ②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건축도시 문제와 현안을 다루는 전문가의 양성, ③ 건축과 도시의 공공성에 주목하는 국제적 수준의 지식을 갖춘 설계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짜여진 다양한 교과과정(전공 교육과정과 교과목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V장 교과과정 참조)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과학대학내의 건축학, 조경학, 도시계획학 등의 전공 영역별 학생들의 학제간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아시아 건축도시 연합(ACAU) 워크샵>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과 독일 데트몰트(Detmold)의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와의 교류협약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한국-독일 공동 스튜디오 및 연합 건축전시회>, 국립 싱가포르대학 건축학부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의 양자간 협약에 따라 학생과 교수의 상호방문 교육 및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국립 싱가포르대학 건축학부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학생 및 교수의 상호교환 프로그램>, 도시과학 특성화자금으로 운영중인 <GLP 프로그램에 의한 유럽 및 아시아 대도시 건축기행>, 샌프란시스코와 미네아폴리스 등 해외의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3개월간의 실무수습과정을 거치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과 함께 3학년 학생들이 주관하는 <나무정자 짓기> 프로그램과 정임 안영배 선생이 회사한 기금으로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제출한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40일간

의 해외여행 기회가 주어지는 <정임 건축상>과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철암, 인제, 태백 등 낙후지역 소외계층의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인 <소외계층 사람들을 위한 집짓기 봉사>, 매년 일정한 주제를 정해 3-5일 동안 건축적 성과를 제한하는 <단기설계 공모>와 국내외 유명 건축가와 예술가를 초청하여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예술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봄, 가을 정기특강>이 등이 매년 계속되고 있으며, 건축학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한 건축의 미래를 위한 교육과 봉사활동인 <K-12 건축교육>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국내외 건축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건축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시과학 특성화 자금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베네토-아시아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건축학부 학생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건축적 경험과 자료의 구축을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건축학부 학생들은 서울시립대학교가 주관하는 SMF(Seoul Metropolitan Forum)와 도시과학대학이 주관하는 학제간 공개토론회인 도시과학 포럼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도시과학 특성화 자금 지원에 의한 <해외 대도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① 아시아 건축도시 연합(ACAU, Asian Coalition for Architecture and Urbanism) 워크샵

아시아 건축도시 연합 워크샵은 서울시립대학교의 도시과학특성화 사업의 골격을 이루는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중국 상해의 동제대학교(Tongji University), 싱가포르의 국립 싱가포르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태국의 방콕에 소재한 어섬션대학교(Assumption University), 홍콩의 홍콩대학교(University of Hong Kong),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가 주축이 되어 출범한 <아시아 건축도시 연합 워크샵>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주도로 2004년 양해각서에 합의한 5개 대학의 건축학부가 매년 돌아가면서 주관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되, 대도시가 면한 새로운 건축도시의 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시아적인 가치를 찾아간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2005년 서울 워크샵을 주관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는 2005-Seoul Workshop을 통해 명동을 대상으로 '대도시의 새로운 공공공간'이라는 주제를 함께 탐구하였는데, 12일 동안 각국에서 참가한 학생들과 튜터들의 열띤 토론과 건축적 제안은 중앙일간지의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2006-Singapore Workshop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아시아 건축도시연합 워크샵 포스터



아시아 건축도시 연합워크샵 최종 크리틱

② 한국-독일 공동 스튜디오 및 연합 건축전시회

한국과 독일의 연합 스튜디오 및 공동 건축전시회는 3학년 혹은 4학년 건축설계 스튜디오 가운데 하나를 독일 데트몰트 소재의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연합전시회를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다. 2005년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과 독일 과학기술대학 총장 사이의 합의각서 교환에 의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Borderlines'을 주제로 2005년 1학기 동안 웹미팅을 통해 공동으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하계방학에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12명이 독일을 방문하여 설계대상지를 둘러봄과 동시에 독일 대학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9월에는 독일 대학의 학생들이 서울을 방문하여 청계천 복원에 따른 주변공간의 변화에 대한 건축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작품전을 개최함으로써 양국의 대도시 환경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은 독일 현지에서의 강의와 발표 등을 통해 자신의 건축적 제안을 평가받았으며, 독일의 학생들은 서울시립대학교를 방문하여 강의와 현장실습 그리고 남북 분단의 현황과 고건축 답사 등을 통해 양국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연계적인 전시 및 강연으로 지속하는데 합의하였다.



한-독 연합 건축전시회 포스터

광화문 광화랑의 한-독 연합 건축전시회

③ 국립 싱가포르 대학 건축학부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학생 및 교수의 상호교원 프로그램

국립 싱가포르 대학의 요청에 따라 2003년 양국 학생과 교수들의 교환방문 및 학점 인정에 대한 합의가 두 대학의 학부장 사이에 체결되었다. 우선 서울시립대학교는 2006 ACAU-Singapore Workshop 준비와 관련하여 2005학년도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학생 12명과 교수 3명이 현지를 방문하여 현장수업과 워크숍 및 대도시 조사 등을 수행한 예정이며, 국립 싱가포르 대학에서는 2006학년도 1학기에 서울시립대학교에 교환학생을 보냄으로써 구체적인 교류협력을 실천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학생들의 서울시립대 교환학습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는 2006학년도 제1학기 교과목 가운데 6개 과목을 영어로 개설할 예정(기초설계 1, 건축설계 1, 건축설계 3, 건축과 컴퓨터, 서양 근대건축, 대학원과목 1개 등)이며,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학생의 싱가포르 방문학습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교류 합의각서



서울시립대-싱가포르대학의 교수위크립

④ GLP 프로그램에 의한 유럽 및 아시아 대도시 건축기행

서울시립대학교의 도시과학 특성화 사업에 따라 건축학부 학생들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GLP(Global Leadership Progra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대도시 건축기행을 실시하고 있다. 학부생 3명과 대학원생 1명 등 3-4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의 서울시민이나 고등학교 재학생인 학생 1명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는 GLP 프로그램은 유럽기행팀에게는 1인당 250만원을, 일본 등 아시아 대도시 기행팀에게는 1인당 150만원의 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그동안 건축학부 학생들은 일본의 현대하우징, 유럽의 환경친화 건축, 중세 이상도시, 환경친화 수법을 이용한 설계사례, 통일독일의 베를린 도시건축물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3년 연속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이와는 별도로 <해외 대도시 체험 프로그램>이 2005년도에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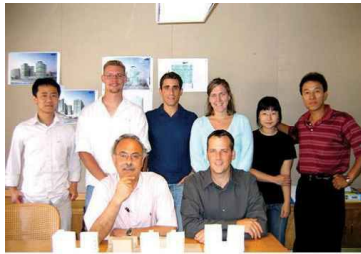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재학생들의 GLP 프로그램 참가 장면

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2002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는 해외 설계사무소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네아폴리스 소재 PD(Parker and Durant International) 설계사무소와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VBN 건축설계사무소에 하계 및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5년제 건축학 전공 과정의 졸업을 위해서는 현장 집 짓기 봉사나 국내외 인턴십에 의한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만큼 모든 학생들은 인턴십을 이수해야 하는데, 해외

건축사무소 인턴십은 매년 2-3명이 선발되며, 희망자는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지참하고 영면접에 응시해야 하며, 선발된 재학생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현지에 체재하면서 설계사무소의 스태프으로서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한다. 인턴십 이행결과는 해당 사무소의 CEO로부터 직접 건축학부장에게 통보되며 인턴십 재학생의 규모는 학부 교과운영 사정이나 현지 사무소의 여건에 따라 다소 조절되기도 한다.



PdE 사무소의 인턴십 기념촬영



VBN 인턴십 기간동안의 건축기행

⑥ 나무 정자 짓기 프로그램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3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실제 건축작업인 나무정자 짓기 프로그램은 매년 봄 4개의 스튜디오 학생들에게 캠퍼스내의 적절한 부지를 찾아 주고 그곳에 2×4의 각재를 이용해 휴게공간이나 쉼터의 구조물 디자인을 제출케 한 뒤 스튜디오 튜터들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뽑아 견적과 목재반입, 시공 등의 전과정에 재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짓기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캠퍼스의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003년까지는 캠퍼스내의 주차공간 등을 이용하여 단시일내에 기구들을 제작하고 일정기간 전시한 뒤 철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나 2004년부터는 실제 부지에 구조물을 건설하고 영구보존하는 동시에 해당 작품을 대한민국 목조건축 대전에 출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튜터들의 지도하에 목구조의 특성과 목재의 이용방법 등을 학습하게 되며, 실제 구축작업을 통해 건축의 실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



2003년 목조 짓기 장면



캠퍼스내 휴게공간으로 이용되는 나무정자

⑦ 정암건축상 : 포트폴리오 심사에 의한 유럽건축기행

서울시립대학교에 30여년 몸 담으셨던 정암 안영배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장학기금을 회사하여 건축학부는 선생의 큰 뜻을 기리고자 정암건축상을 제정하게 되었다. 정암건축상은 도시, 사회, 문화, 예술, 환경, 기술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건축으로 포괄하는 의지와 재능을 갖춘 건축학 전공학생을 발굴, 그의 잠재적 재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여행을 후원하는 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암건축상은 하나의 설계 프로젝트 보다는 기초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스튜디오를 거치면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시키는 과정의 결과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그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정암건축상은 건축을 전공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수혜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포트폴리오 심사를 외부의 명망있는 건축가에게 일임하고 수상작이 선정되면 정암 선생님이 직접 시상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정암건축상 수상학생은 장학금으로 해외건축 답사여행을 다녀오게 되며, 수상 포트폴리오는 건축학부 자료실에 영구 보존된다.



정암건축상 수상자의 유럽건축기행



정암건축상 수상자의 포트폴리오

⑧ 소외계층 사람들을 위한 집짓기 봉사

철암과 인제 등 강원도의 낙후된 폐광지역 집짓기 프로그램은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함께 멈춰버린 탄광촌, 강원도 태백과 인제 등의 주택을 개선해가는 작업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철암 집짓기는 각종 사회 단체들의 후원과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와 일부 의식있는 건축가들의 현장 조사, 설계, 감독,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의 서툰지만 정성어린 참여로 이루어진다. 2002년 여름 ㈜강원랜드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총 17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독거노인들이 거주하는 5채의 집을 개축 또는 신축하였으며, 2003년과 2004년에도 역시 5채의 주택에 대한 개선 사업이 7월 10일에서 8월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005년에는 인제리리와 2, 3리에 각각 3채의 집짓기가 이루어졌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에서는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현장조사, 설계, 감독에 참여하여 강의실과 설계실 너머에 있는 현장 건축의 가치와 공공성,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고민하게 된다. 또한 장인적 구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한 학생들이 집을 짓는 사람으로서의 건축가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 철암과 인제의 집짓기 사업에

통해 종이 위에,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권 건축 교육의 틀을 벗어나 학생들은 건축과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다.



강원도 태백 철암에서의 집짓기 봉사



강원도 인제 특기노인을 위한 집짓기 봉사

⑨ 단기설계 공모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는 매년 가을, 학부 재학생과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모든 구상, 설계와 프리젠테이션이 마무리되는 단기설계 공모전을 주최한다. 정규 스튜디오가 대개 일정 시간을 두고 축적된 과정을 통해 설계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단기설계 공모전은 짧은 시간에 자신의 건축적 능력을 함축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단기설계 공모전은 1995년 삼풍 추모공원, 1996년 종이 의자, 1997년 빛 상자, 1998년 재활용 수납공간, 1999년 시간동 읽기/그리기, 2000년 나무의자, 2001년 등(燈), 2002년 스파게티 지붕, 2003년 나무의자, 2004년 몸피가 두터운 사람이나 마른 사람을 위한 의상디자인, 2005년 전시장 철거 폐기물을 재활용한 벽면장식과 오브제 설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주제 속에서도 건축학 전공이 추구하는 양대 교육 목표인 건설하면서도 매체를 자유롭게 다루는 건축가, 대도시 서울의 잠재력과 문제를 파고드는 건축가를 키우겠다는 목표에 부합하여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다루고 직접 물체를 만드는 작업을 중시한다. 외부의 건축가, 엔지니어, 디자이너, 아티스트를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건축과 동문들의 꾸준한 후원으로 가을의 건축학부 축제와 동시에 진행된다.



2001년 출품작



2004년 행사장면

⑩ 봄, 가을 정기특강과 국제 심포지엄 및 초청세미나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는 봄·가을 정기 강연 시리즈(Spring·Fall Lecture Series)를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비정규 교과를 운영하며, 지역학 연구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서울학 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되는 서울학 포럼에 재학생들이 참여한다. 또한 국제심포지엄인 도시과학연구원 서울 메트로폴리탄 포럼과 서울시립대학교와 상해교통대학 사이의 국제 포럼(Seoul-Shanghai Forum), 서울-동경 서클포럼 등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학내 행사에 자원봉사를 하는 미덕을 전통으로 전수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깊이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게 된다. 이밖에도 건축학부 재학생들은 매년 실시되는 대학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일몰증터와 건축학부의 다양한 행사와 전시 및 강연 등의 포스터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종 포스터와 초청장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건축학부가 위치한 건설공학관의 로비와 각종 사이보드 등에 대한 실제 디자인을 통해 일상 속의 건축을 실현하고 있다.



작품전 포스터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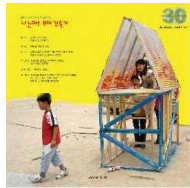
건축학부 일몰증터



해외건축가 특강

⑪ K-12 어린이 건축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한 K-12 어린이 건축학교는 지도건축가 홍성천(건축학부 동문), 박민수(건축학부 동문), 강승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3학년 학생 12명이 도우미로 나서서 실시되었다. 서울시립대학교 동문과 교수 및 직원자녀 50명을 대상으로 한 2005년 행사는 재료와 구조를 이용하여 직접 자신이 생각하는 아지트를 만들어 보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물의 구축 관계와 구축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사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협동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사고하기와 만들기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06년 부터는 <K-12 건축교육>을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과정의 중요한 교외 활동 프로그램으로 수용하여 발전적인 교과과정의 모색과 함께 가족 단위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건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포마건축가 포스터



어린이 건축학교 참가 학생들



어린이 건축학교 성과물

㉔ 베세토-아시아 아카이브 구축사업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프로그램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특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베세토-아시아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북경-서울-동경을 잇는 아시아 대도시와 몽골,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버마, 필리핀과 인도, 파키스탄, 라오스 등의 아시아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미지 라이브러리, 맵 라이브러리,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을 구축하는 이 사업은 건축학부 재학생과 교수들의 주도로 2004년에 웹 사이트를 개설(www.beseto-asia.com)하여 현재는 북경, 서울, 동경의 이미지 라이브러리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5년간 맵 라이브러리와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재학생들은 자신의 아시아 대도시 건축도시 기행을 통해 수집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웹 사이트에 직접 올려 콘텐츠를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올려진 각종 시가지자료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강의와 연구에 직접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용으로는 무상 제공된다.



베세토-아시아 아카이브 초기화면



베세토-아시아 아카이브 검색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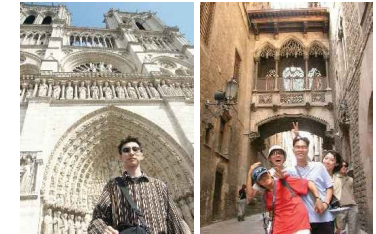
㉕ 선진도시 탐방 프로그램

건축학부가 소속된 도시과학대학 재학생(학부+대학원)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선진도시 탐방 프로그램은 호주의 모나쉬대학, 싱가포르의 난양대학, 상해의 푸단대학을 중심으로 각각 24명씩 모두 72명의 재학생

을 선발하여 1개월간 해당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과학 관련강좌(도시계획, 환경, 주택, 교통 등)를 수강하고, 해당 도시의 다양한 기반시설과 사업현장을 탐방하는 동시에 현지 도시정부의 도시관련 전문가의 초청강연을 듣고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어학연수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도시과학 특성화 자금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탐방 프로그램이다. 탐방 참가자는 일정한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탐방 후에는 대학에서 정한 양식과 내용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현지 도시전문가의 특별강연



선진 도시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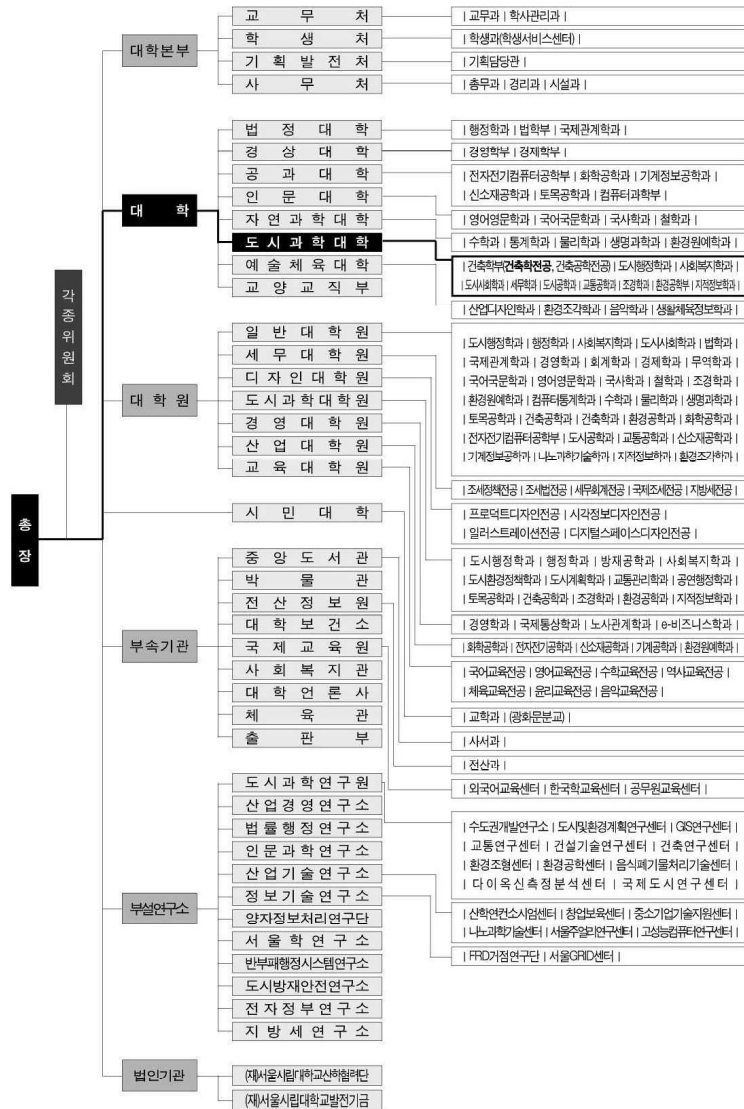


강원도 철암에서의 집짓기 봉사

II. 건축학부 및 건축학 전공의 조직 소개

II. 학부 및 건축학 전공의 조직 소개

II-1. 건축학부 및 건축학 전공의 소속 직제



II-2. 건축학부와 건축학 전공의 학사운영 및 행정 처리

1) 건축학 전공 학사행정 운영 프로세스

1986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서울시립대학교는 2005년 11월 현재 4개 처와 7개 단과대학 및 1부(교양교직부), 7개 대학원과 10개의 부속기관, 12개의 부설연구소와 2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 단과대학은 7개 학부와 27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학정원은 대학이 1,815명, 대학원은 1,070명으로서 2005년 11월 현재 1만 2천여 명의 학생이 학부와 대학원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건축학 전공과정이 운영되는 건축학부는 도시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교과운영과 학사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건축학부장이 통괄하고 있으며, 건축학 전공 주임교수와 건축공학 전공 주임교수를 지휘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건축학 전공 주임교수와 건축공학 전공주임 교수가 각각 1년씩 건축학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따라서 학사행정과 교무행정 일체는 건축학 전공 주임교수 → 건축학부장 → 도시과학대학 교학과장 → 도시과학대학장 → 4개 처장 → 총장의 직제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장학 및 시설관리, 홍보 등과 관련한 행정은 각각의 업무를 통괄하는 고유부서의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된다.

- 교과과정 운영 등 일반 학사행정
건축학 전공 주임교수 → 도시과학대학 교학과장 → 도시과학대학장 → 교무처장 → 총장
- 연구 및 봉사관련 학사행정
건축학 전공 주임교수 → 도시과학대학 교학과장 → 도시과학대학장 → 교무처장(혹은 산학협력단장) → 총장
- 장학관련 학사행정
건축학 전공 주임교수 → 도시과학대학 교학과장 → 도시과학대학장 → 학생처장 → 총장
- 도시과학특성화 사업 및 홍보,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건축학 전공 주임교수 → 도시과학대학 교학과장 → 도시과학대학장 → 기획발전처장(혹은 산학협력단장) → 총장
- 예산 및 시설물 등 물리적 시설관련 업무
건축학 전공 주임교수 → 도시과학대학 교학과장 → 도시과학대학장 → 사무처장 → 총장

2) 건축학 전공 및 건축학부 소속 교원의 협의체 운영

건축학 전공과 건축공학 전공과정으로 구성된 건축학부는 모두 19명으로 구성된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전공 간의 유기적 연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 프로그램이나 학부의 일괄 학사행정과 교무 및 장학행정 등에 있어 성실하고 협조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월 2회(1, 3주 월요일 오전 10시)로 규정된 학부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건축학 및 건축공학 전

공 프로그램은 각각 월 2회(2, 4주 월요일 오전 10시) 별도의 전공 프로그램 교수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개별 적 안건을 토론하고 결정한다.

이를 위해 매학기 월요일 오전 시간은 학부 및 전공 프로그램 교수회의를 위해 학부와 대학원의 모든 수업이 잡히지 않으며, 해당 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설계과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매학기 시작과 종료 후에 설계담당 교수(전임+겸임+시간강사) 모두가 참여하는 평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부 소속 전임교원들의 연구분야 조연과 이해 등을 위하여 UOSA 플로퀴움을 분기별 1회 운영하며 이 모임에는 전임교수, 명예교수와 학부 소속 겸임교수가 참석하여 상호 이해를 높인다.



서울시립대-국립신기술대학의 교수 워크숍

Ⅲ. 교수진 현황 / 이력서

III. 교수진 현황 (2005년 2학기 기준)

III-1. 건축학 프로그램 재직교수

구분	성명	출생년도	직위	최종학위	최종학위를 받은 교육기관과 연도	경력			전문자격 (예, 건축사)	활동정도 (상, 중, 하, 없음)			
						정부/산업체 근무년수	교수직 총 근무년수	현 교육기관 근무년수		전문학회	연구	산업계 서클	
전임	정교수	이특구	1944	교수	박사	한양대(1987)	9	25	25	건축사	상	상	상
		홍대형	1946	교수	박사	서울대(1990)	3	33	26	건축사	상	상	상
		최찬환	1947	교수	박사	연세대(1986)	-	28	26	-	상	상	상
		신법식	1948	교수	박사	한양대(1990)	2	29	29	-	상	상	상
		송인호	1957	교수	박사	서울대(1990)	5	17	9	-	상	상	상
		이선영	1962	교수	석사	버클리대(1989)	8	9	7	미국공인건축사	상	상	상
	부교수	배형민	1961	부교수	박사	MIT(1993)	2	10	10	-	상	상	중
		김성홍	1960	부교수	박사	조지아공대(1995)	3	9	8	-	상	상	상
	조교수	박철수	1959	조교수	박사	서울시립대(1993)	14	5	3	-	상	상	상
	전임강사	김소라	1970	전임강사	석사	펜실베이니아대(1998)	7	1	1	미국공인건축사	중	중	중
비전임	외국인객원교수	Arshad Ali	1977	초빙교수	박사	핀란드 미술디자인대학 MIAH(2003)	-	4	3	미국공인건축사	중	중	중
	겸임교수	곽재환	1952	겸임교수	학사	영남대(1975)	26	6	3	건축사	상	하	상
		홍성천	1964	겸임교수	석사	서울시립대(1988)	15	7	6	건축사	상	중	상
		김태철	1963	겸임교수	석사	북린던대(1998)	18	7	3	건축사	상	중	상
	외래교수	박민수	1963	시간강사	박사	서울시립대(1997)	14	-	7	-	하	상	상
		심영선	1963	시간강사	석사	미네소타주립대(1990)	13	-	4	건축사	상	중	상
		김동건	1967	시간강사	석사	글래스고우대학(1995)	13	-	2	-	하	중	상
		박재희	1960	시간강사	석사	영국 UEL대(2003)	19	-	1	건축사	상	중	상
		성건경	1955	시간강사	석사	서울대(1990)	24	-	2	건축사	상	중	상
		신원혜	1970	시간강사	석사	클럼비아대(1997)	7	-	1	-	하	중	상
여동진		1964	시간강사	석사	파리 벨빌대(1999)	6	-	1	프랑스공인건축사	하	중	상	

※ 건축학 전공 교과목 강의를 지원하는 건축공학 전공과정의 전임교수 8명(부교수 4, 조교수 4)과 건축공학 전공과정에서 위촉한 겸임교수 2명, 외래교수 7명은 제외하였음.

III-2. 건축학 프로그램 비전임교수의 계약조건

① 외국인객원교수 관련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임용기준, 제정 2005.1.11. 규정 제683호)

제16조(자격) ①외국인객원교수는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외국인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 담당 외국어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도 가능하다.

제17조(총원) 총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객원교수의 정원을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외국인객원교수의 임용) ①외국인객원교수는 소속 학부(과)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 대학 장, 대학원장 또는 교양교직부장이 외국인객원교수임용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인객원교수의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력서(연구실적 포함) 1통
- 2. 최종학력·경력증명서(번역문 포함) 각 1통
-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임용 후 제출) 1통
- 4. 신원보증서(대학(원)장 또는 교양교직부장의 보증) 2통(국문, 영문)-(별지 제5호서식)
- 5.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류

③총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에 의해 임용자격 여부를 검토한 후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용에 정자로 확정한다.

④외국인객원교수 임용계약은 총장이 이를 체결하며, 계약 체결에 있어 별지 제6호 서식을 사용한다.

제20조(보수) 객원교수에게 지급할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

제21조(실비반상 등) 외국인객원교수의 임용에 있어서 항공료, 주택비 및 집기구입비 등을 예산에 계상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임용기간) ①외국인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 및 교양교직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연장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를 첨부하여 임용연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총장은 임용연장 추천된 자에 대하여 강의실적 등을 심사한 후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 관련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임용기준, 제정 2005.1.11. 규정 제683호)

제25조(자격) 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연구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
- 2.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제26조(임용) ①겸임교수의 임용추천은 소속 학부(과)의 요청에 의하여 활용기관의 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

②겸임교수 임용 추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겸임교수 임용추천서 1부

- 2. 겸임교수 활용계획서 1부
- 3. 소속 기관장의 동의서 및 본인 동의서 1부
- 4. 이력서(연구실적을 포함) 1부
- 5.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③ 총장은 제1항의 추천자에 대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제27조(임용기간) 임용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임무 및 권리) ①겸임교수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 1. 대학(원)강의 또는 실험실습
 - 2.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 3.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 4. 기타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 ②겸임교수는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29조(면직) ①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 1. 본직 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
 - 2. 제28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 3. 기타 활용기관의 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 ②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활용기관의 장은 총장에게 면직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차우) ①겸임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③ 외래교수 관련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 1999.1.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이하 "본교" 라한다)의 시간강사의 자격 기준과 위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시간강사의 자격은 대학 졸업자로서 교육 및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자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의하여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원)장의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다.

- 1. 담당 과목의 성질상 전항의 교육 및 연구 경력을 가진 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
- 2.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일 때

제3조(경력환산) 전조의 교육경력은 대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의 학교 교육경력에 한하여, 연구 경력은 교수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연구실적환산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4조(위촉) ① 시간강사는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기타 위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학부(과)장(대학원은 교학과장)은 해당 대학(원)장의 심사를 거쳐 추천하며 총장이 위촉한다.